



학도넷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발행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발행일 2016년 12월 15일 | 총권 41호 | 주소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강하2로 267 | 전화 02-720-7259 팩스 02-720-7259 | 이메일 hakdonet@hanmail.net | 편집 학도넷사무처 | 디자인 인디자인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지 지 않는 꽃

아침 설거지를 끝내고 작업실에 앉아 창밖을 본다. 여름 내내 무성한 잎을 달고 내 방을 내려다보던 키 큰 나무도 바람이 불 때마다 잎을 떨구며 겨울 채비에 들어간다.

벌써 한해가 또 지나가네. 새해에 할 일들을 머릿속에 그리며 앞서간 한해도 돌이켜 보다 뚝, 생각을 멈춘다. 그냥 그동안 해 오던 바느질이나 계속 해야지.

바늘에 실을 꿰려고 눈의 초점을 바늘귀에 맞추는 순간, 무엇인가 반짝 내 눈길을 먼저 가져갔다.

어제 밤 서울에서 돌아 와, 걸고 끼고 있던 것 다 벗어서 담아둔 작은 상자 속의 노오란 노오란, 노오란 것들이었다. 손에 들었던 것을 내려놓고 상자를 당겨 그것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본다.

W군 어머니가 살며시 손에 쥐어준 압화 목걸이.

K군 어머니가 수줍음 가득한 얼굴로 걸어 주던 자수 목걸이.

양증맞은 노란색 꽃이 보석처럼 박힌 그녀들의 작품이다.

무엇이 이 여인들로 하여금 눈이 아프도록 이 작은 것에 집중하며 시간을 잊도록 하는가?

그리움, 그리움, 사무친 그리움 때문 일게다.

많은 손들이 모여 완성한 리본, 팔찌, 배지도 있고, J군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만든 핀도 있다.

다시 볼 수 없는 이 다정한 모습과 미소.

눈물이 난다. 남의 일만이 아니어서 더욱 그렇다.

오랫동안 내 가슴 깊이 묻어 두고 있는 그리움이 함께 뛰쳐 나와서이다.

나는 지난 3월, 한달 내내 주말마다 1박 2일로 안산을 다녀왔다.

세월호 참사 2주기 '기억식' 행사 준비 때문이었다.

기획한 것과는 달리 시간은 많지 않고 따라서 홍보도

늦어져서 일손을 모으기는 쉽지 않은데, 이효립 선생 혼자 여기 저기 뛰어 다니는 것을 보며 함께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원래는 디자인을 공모, 심사해서 시민 워드로 진행하려던 것이 차질을 빚은 것이다.

분향소에서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마주 본 304명의 얼굴. 이 기막힌 상황.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 늙은이가 지금 무얼 할 수 있을까요?'

이 일에서 피할 수 없는, 일종의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머칠 동안 생각하고 그려보고 샘플을 만들어 보다가 내린 결정은 <지 지 않는 꽃 >이었다.

얇은 천을 등글게 오리고 접어서 한 가닥의 실로 바느질해서 만들 수 있는 이 꽃은, 누구든 참여 할 수 있고 더구나 여러 지역에서 재료를 가져가 꽃을 만들어서 행사 사무실로 보내 주는 것이 가능 했다. 내 머리 속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시간이 부족하고 일손이 너무 귀했다. 소식을 듣고 달려 와 준 나의 인연들과 유가족 협의회 사무실 한 칸에서 시작한 일은 진행이 너무 더뎠다.

6~7송이의 꽃과 노란 조각배가 하나인 만장 304장은 실제로 일이 많았다.

*만장(輓章): 죽은 이에 대한 슬픔을 비단이나 종이에 써서 깃발처럼 만든 것.

걱정하고 있는 나와 K군 어머니(만장 준비실무팀장)를 바라보던 몇 분들이 함께 해 보자며 나섰다.

수학여행 보낸 아들,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들이다. 믿기지 않는 이 현실을 마주하고서도 거의 매일같이 일인 시위를 하고, 모임에 나가 이야기하고, 일과가 끝나면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을까 이 사무실에 들르는 분들이다. 진도 동거차도 언덕 천막에서

차례

01_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1)

02_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2)

03_ 이런 수업 어때요

04_ 추천도서

BOOK 사서

06_ 학교 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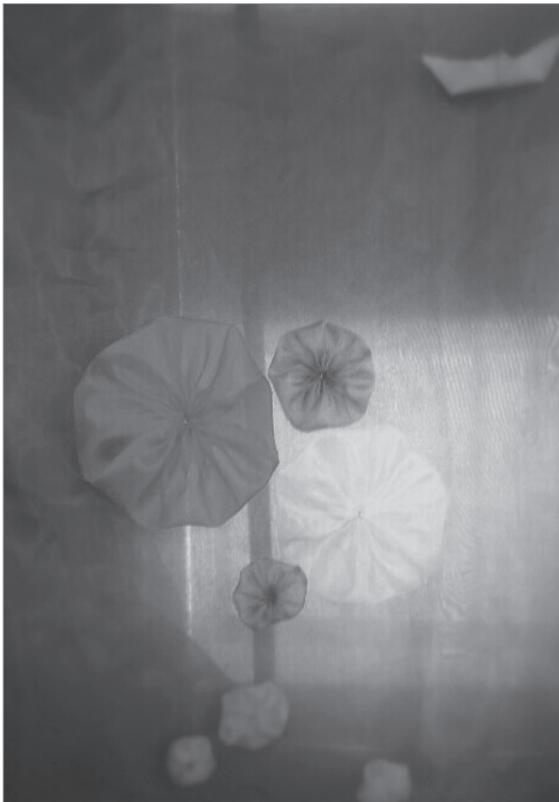
나미정 / 김남기 / 오현애 / 임인숙

08_ 학도넷 소식

학도넷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또는 사서교사, 학부모, 학생, 문헌정보과 교수, 출판인 등 도서관과 독서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연대모임입니다. 학도넷 운동은 평등교육과 문화운동의 시작입니다.

학도넷소식지는 학도넷 운동의 일환으로 도서관과 독서운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학도넷 회원(준회원 이상)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회원으로 등록하실 분은 학도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시오. www.hakdo.net

학교 도서관을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보낼 곳 : hakdonet@hanmail.net



일주일동안 세월호 인양 작업을 지켜보다 교대하고 돌아온 부모님도 있었다.

“우리가 이 일까지 해야 하나요, 이 아픈 가슴으로요?”

“어떡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인데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모님을 기리며 자녀들이 해야 할 이 작업을, 먼저 간 아이들을 위해 부모가 하고 있다니~!

거듭 미안 할 뿐이었다. 아버지들이 천에 분을 그리고 마름질 해 놓은 것을 어머니들이 바느질 했다.

“우리 아이들이 예쁜 색깔의 시들지 않고 지지 않는 꽃이 되어 오래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바느질에 담아 주시면 됩니다. 바느질은 마음입니다.”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 배인, 그렇지만 너무나 예쁜 꽃들이 하나 둘 모여서 바구니를 채웠다.

한 주가 지나자 사무실에는 많은 한복들이 도착했다. 장롱 속에 있던 다양한 색깔의 한복 천들이 지지 않는 꽃으로 피어나기 위해 나들이 한 것이었다.

슬픔과 분노로 어두움이 가득했던 사무실이 환해지고 꽃밭이 된 듯 했다. 사무실에 들어서던 분들이 “뭐야 이게 뭐야?”

“여기 앉아서 꽃들 좀 만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

하던 색으로 꽃을 만들자구요.”
“지지 않는 꽃을 만들자고 선생님이 멀리서 오셔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대책 없는 눈물이 또 난다.
“이건 너무 좋은 한복인데 아깝다. 누가 보낸 거야? 내가 한번 입어 볼까? ㅎㅎ”
“우리 새끼들보다 더 아까운 게 어디 있어? 여기 있는 무엇이든 다 잘라서 이쁜 꽃이나 얼른 만들어요.”
한복을 걸쳐보는 모습을 보며 새색시 같이라며 모두 웃는다.

“우리 애는 남자애가 빨강을 좋아 하더라고요.”
“우리 딸은 보라색을 무지 좋아 했는데.”
“엄마는 예술적 안목이 없다고 핀잔주면서 내 옷을 골라주곤 했는데...”
“분홍, 분홍 천 이리 좀 줘요.”
“나는 내 아이 만장 하나 내가 만들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엄마가 여기 못 나오는 애들도 있으니 그러면 안 되겠네. 함께 만들어 줘야지.”

또 다시 눈앞이 흐릿해져, 허리 무릎이 아프다는 핑계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세 시간 삼십분 버스타고 와서 다시 불편한 의자에서 세 시간을 앉아 있었으니 그럴 만도 했다. 3월의 싸늘한 바람이 분향소 마당을 헤매고 있었다. 그 바람 따라 심호흡하며 걷다가 한쪽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여인들과 마주쳤다.

이 마당에 웬 빨래? 큰 버스까지?
아~! 이를 어찌나? 자원 봉사자들의 손에 들린 건 바다에서 건져 올린 희생자들의 소지품과 옷가지들이었다.
쫓기듯 켜 걸음으로 사무실로 돌아왔다. 꽃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고 있었다.

엄마를 따라 분향소에 들렀다 바느질 예쁘게 하느라 말이 없는 소녀들.
바느질은 자신 없다며 가위질 열심히 하는 청년들.
2년이 다 되도록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미안하다며 돌보기 너머로 바늘 땀 챙기시는 여든 넘으신 할머니.
조용히 와서 주변 정리를 해 주고 돌아 나가는 젊은이.
소식 늦게 들었다며 멀리서 온 가족이 잔뜩 챙겨 온

주먹밥 식사. 먹기 좋게 담긴 과일까지.
슬픔속의 아름다움이었다.

테이블 뒤편에서는 K군, J군 어머니가 완성 된 꽃을 크기별로 정리해서 수량을 세느라 바빴다. 부지런히 만들었지만 많이 부족한 듯 했다. 좀 더 많이 참여해 줘야 하는데...

다시 찾아 온 주말.
분향소에 들렀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바구니마다 색깔의 예쁜 꽃들이 넘쳐 났다.
수녀원과 다문화 가정 모임에서도 가져 오고 서울, 인천, 파주 등 여기 저지에서 택배가 도착 했단다.
“꽃이 많아요. 목표량을 넘긴 것 같습니다.”
걱정하며 열심히 꽃을 세고 있던 K군 어머니의 밝은 목소리다.
“어느 하나 정성스럽지 않은 것 없지만 색깔을 고려해서 달아야 하니 그 부분을 참고 하세요.”

304개의 조각배와 2,000송이의 꽃. 지지 않는 꽃. 다 되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했는가? 한결 가벼워졌다. 몸무게가 7kg 줄었다.

이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은 오고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고, 잊지 않을 거라고 말해 줘야지.
나는 다시 바늘에 실을 켜다.

김봉화 | 섬유예술연구소 '무향거' 대표, 조각보 장인인 선생님은 변산공동체 아랫마을에 살면서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우리 바느질을 가르치고 우리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사신다.



자유학기제와 책소개 UCC 만들기

- 강애라 (서울 미양중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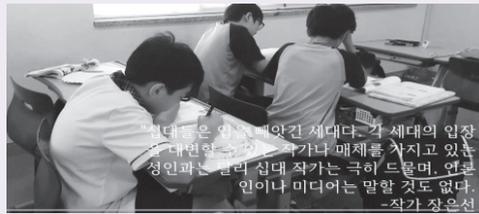
2015년 미양중학교로 와 이 학교에서 처음 실시하는 자유학기제를 맡게 되었다. 교육적 환경이 너무 달라 혼란스러운 면도 있었지만 위기가 기회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맘을 먹어서인지 자유학기 2년차인 올해는 수업에 있어서 좋은 성과가 나타났다.

담당부서 담당자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데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수업혁신이다. 그동안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넘어서는 통합, 융합수업을 시도했지만 몇 명의 교사가 새롭게 시도하는 수업에 그치는 점이 아쉬웠고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자유학기제는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었다. 공식적으로 그것도 지원까지 받으면서 교사 공동체를 만들어 교육과정을 함께 공유하며 통합, 융합 수업을 계획할 수 있었다. 수업에 관한 고민을 함께 하니 교사로서 정체성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접근이 가능했다. 한 달에 두 번 정기적 모임은, 함께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고, 수업에 관한 고민도 함께 하면서 동료교사의 수업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특히 올해는 새내기 교사가 많이 참여하여 자연스럽게 멘토-멘티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새내기 교사의 열정을 통해 기존교사가 자극을 받는 의미 있는 공동체 협의가 되기도 했다.

여기서는 이런 공동체 활동을 통해 개인적으로 용기를 내어 새롭게 시도했던 국어시간 활동하나를 소개하려고 한다. 영상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시도하지 않았던 활동으로 젊은 기술선생님과 미술선생님의 조언을 얻어 프로젝트 수업을 구상하였다.

독서 UCC 만들어 책 소개하기

모둠별로 같은 책을 함께 읽고, 내용을 영상으로 표현하여 책을 소개하는 수업이다. 성장을 다룬 문학작품을 4권정도 선정하여, 모둠원이 그 4권을 살펴 볼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여 책을 구입한다. 4권의 책을 모둠원들이 모여 살펴보고 모둠 별 한권을 선택해서 깊게 읽기를 한다. 한권의 책을 함께 읽고 내용에 대한 토의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함께 읽는 책읽기는 토의가 가능하고 토의를 통해 혼자만의 생각을 넘어 책 내용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다. 또한 책 소개를 하는 영상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책 내용이 자신의 삶과 연결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현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기를 기대한다.



1등급 개인속소

7등급 개인속소



<밀레니엄칠드런>을 읽고 만든 동영상장면이다. 모둠학생들이 직접 연기한 화면 두 개를 실었지만 전체 동영상은 각종 통계와 사진을 동원하여 만들었다.

<자유를 향한 질주 42.195KM>로 만든 UCC이다. 책 내용을 직접 모둠원이 그려 촬영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차시	교수·학습 내용 및 과정		학습 자료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서 UCC 만들기의 취지를 설명한다. ·함께 읽기의 장점을 설명한다. ·교사가 선정한 4권의 책에 대하여 설명한다. ·수업 진행에 방법을 설명 한다. 		단행본 자료
2~3차시	교수·학습 내용	교수·학습 과정	
	<p>생각 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도서관을 통해 마련된 책을 읽는다. ·한 모둠이 4권의 책을 살펴볼 시간을 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펴본 4권의 책 중 함께 읽을 한권의 책을 선정한다. ·한권의 책을 읽는다. 	
4~5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께 읽은 책 내용을 모둠원끼리 공유한다. ·토의를 통해 UCC 주제 및 틀을 잡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 내용을 UCC 표현하는데 어떤 컨셉으로 잡아 표현할지 정한다. 	스토리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틀이 잡혔으면 틀에 맞는 스토리보드를 작성한다. ·작성된 스토리보드를 어떤 방식으로 촬영할지 정한다. ·촬영할 준비를 하고 계획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토리보드를 완성한다. ·촬영도구를 정한다. ·촬영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한다. 	
6~7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시간에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촬영한다. ·촬영한 영상을 어떤 식으로 편집할지 함께 논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와 실외 촬영을 구분하고 실내 촬영은 수업시간에 한다. ·촬영된 영상을 보고 편집한다. 	핸드폰 / 컴퓨터 촬영도구
8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성된 영상을 틀어 친구들에게 영상물을 보여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표하는 친구를 말을 경청하고 채점 기준에 의해 나도 채점한다. 	

‘BOOK 사서’가 권하는 ‘진로 도서-꿈·직업·인물’

‘BOOK 사서’는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학교에서 근무하는 사서들의 모임이다. ‘BOOK 사서’는 초등학교 도서관 사서로서 책에 관한 이해를 쌓기 위해 같이 읽고, 토론하는 모임을 10여 년 동안 이어왔다. 그동안은 BOOK사서들끼리만 공유하는데 그쳤지만, ‘정보를 공유하자’는 의견이 모여 첫 ‘진로 도서 목록’을 만들었다. 진로 목록은 꿈·직업·인물부문으로 나누고, 부문별 1·2학년용, 3·4학년용, 5·6학년용으로 나눠 선정했다. 다음 목록은 그 중 부문별, 학년별로 1, 2권을 발췌한 것이다.



커다란 일을 하고 싶어요

실비 니만 글/ 잉그리드 고든 그림
이주영 옮김/ 책속물고기/ 2013

어느 날 아침, 양리는 아빠에게 커다랗고 멋진 일을 하고 싶는데 아직 어려서 할 수 없어 화가 난다고 말한다. 커다란 일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양리는 ‘홀로 우뚝 서서 밤바다를 환히 비춰 주는 등대같이 커다란 일’이라고 알쏭달쏭한 말만 한다. 그런데 바위에 갇힌 물고기를 구해준 일로 인해 아빠와 양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된다. ‘작지만 커다란 일’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와 그림으로 풀어낸 것이 흥미롭다. (꿈/1·2학년)



이모의 꿈꾸는 집

정옥 글/ 정지윤 그림/ 문학과지성사/ 2010
특목고 입학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캠프라는 엄마의 권유에 가게 된 ‘꿈꾸는 집’에서 벌어지는 판타지 같은 이야기.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책은 거들떠보지도 않던 진진이가 책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꿈이 무엇인지 깨달아 가는 과정을 경쾌하게 그리고 있다. 진정한 꿈은 어른의 강요가 아니라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가면서 느끼는 즐거운 감정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정겹고 편안한 시골을 배경으로 사람과 대화가 되는 사물, 동물, 식물의 캐릭터들이 이모가 주는 친근함과 어우러져 재미를 더한다. (꿈/3·4학년)



아트걸과 도넛맨

라사 그래프 글/ 최지현 옮김/ 찰리북/ 2016
그다지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엘리는 보모로 온 누나를 만나며 마음속 이야기를 나눈다. 쓰기 시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 가기 싫은 날, 학교 끝나고 좋아하는 도넛 먹기, 슬픈 날 동물원 가기, 도넛맨 그리기 등을 함께 하며 누나는 엘리가 똑똑하고 다정한 아이라고 말해준다. 특별하진 않으나 할 수 있는 것에 최대한 노력을 하며 자신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아이의 내면이 섬세하

게 그려졌다. 책 후반부 플립북 기법의 나르는 도넛맨 그림도 색다른 재미를 준다. (꿈/5·6학년)



한 손의 투수

M. J. 아크 글/ 문신기 그림/ 고정아 옮김
볼나무/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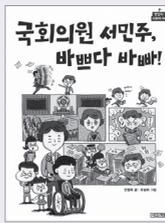
야구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노먼은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돕다 사고로 왼손을 잃는다. 사고 후에도 야구를 하고 싶어 가능한 방법을 생각한다. ‘한 손으로 공을 던졌다 받기’, ‘한 손으로 타격하기’를 연구하며 열심히 연습한다. 꾸준히 반복해서 노력한 끝에 학교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훌륭하게 경기를 마친다. 신체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지만,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 노력하는 아이의 모습이 감동적으로 그려졌다. (꿈/5·6학년)



일하는 우리 엄마 아빠 이야기

백남호 글·그림/ 철수와영희/ 2012

행복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 미용사로 일하거나 떡볶이나 학용품을 팔거나 세탁소를 하고 또는 공장에 다니는 엄마 아빠들의 일과 삶에 대한 이야기다. 엄마 아빠들의 일과 관련된 도구들을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게 글과 그림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다. 일과 노동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할 기회를 갖고, 그 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준다. 소중한 가치 있는 엄마 아빠의 일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코너도 소개되어 있다. (직업/1·2학년)



국회의원 서민주, 바쁘다 바빠!

안점옥 글/ 유철화 그림/ 세계질/ 2014

원래 의사인 서민주는 장애인이동에 관심을 두게 되고, 다친 사람을 치료해주는 것 보다 다치지 않게 예방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된다. 서민주를 통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는지, 국회의원의 일상과 하는 일을 세세하게 알 수 있다. 만화 구성이 많아 읽기 편하고, 어려운 용어들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국회의원이 되어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아우르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일하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권한다. (직업/3·4학년)



세계를 움직이는 국제기구

박동석 글/ 전지은 그림/ 봄별/ 2015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17가지 국제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준다.

국제기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엔(UN), 즉 국제연합이다. 이 밖에도 국제원자력기구, 세계무역기구,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보건기구 등이 있다. 국제기구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어울려 일한다. 아이들이 더 높은 꿈을 꾸고, 좀 더 큰 세상을 보는 데 도움이 된다. (직업/5·6학년)



도서관 할아버지

최지혜 글/ 엄정원 그림
고래가숨쉬는도서관/ 2014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는 보물창고를 만든 사람 이인표 할아버지. 경제인으로 돈을 많이 모은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위한 일에 어떤 것이 있을까?’ 늘 고민했다. 그는 도서관에서 답을 찾았다. 도서관은 가난한 아이들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아이들이 세계무대에 당당하게 서는 방법 또한 도서관에 있다고 생각하고 어린이도서관을 만들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지은 인포어린도서관은 수많은 아이에게 꿈과 희망의 보물창고로 자리 잡았다. 그림이 흑백인데도 도서관 할아버지의 마음처럼 따뜻하다. (인물/1·2학년)



허균과 사라진 글벗

김해동 글/ 문월 그림/ 개암나무/ 2015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소설인 홍길동전을 집필한 허균. 글방 친구 이문과 우연히 전기수의 이야기를 듣다가 일어난 사건은 훗날 우리나라 최초의 언문소설인 홍길동전을 집필하는 계기가 된다. 책을 사랑한 허균, 그의 스승인 이달, 일상의 소박함에서 탄생한 조선 최고의 문장가를 만나볼 수 있다. 책의 모양이 크게 나와 서체가 시원시원하고 그림이 선명하여 지루하지 않다. 작가를 꿈꾸는 아이들과의 만남을 바란다. (인물/3·4학년)



늘 푸른 버드나무 유일한

한수연 글 / 김홍 그림 / 하늘을나는교실
200쪽 / 2013

아홉 살에 홀로 미국 유학을 떠나 젊은 사업가로 성공한 유일한. 미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도 우리나라로 돌아와 민족을 위한 사업을 시작한다. 자기 혼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는 기업인의 모범을 보여준다. 거짓되지 않고, 뇌물을 주지 않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그리고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되돌려준 사람이다. 기업가로 성공하여 사회에 유익하게 환원하는 모습이 본보기가 된다. (인물/5·6학년)

내가 권하는 책



청소기에 갇힌 파리 한 마리

멜라니 와트 지음
여유당 / 96쪽 / 2016년

올해의 대부분 시간을 병원 중환자실에서 보내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가혹한 일이 일어났는지 믿을 수 없고 너무 화가 났다고. 힘든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아직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걸 알게 됐노라고 얘기하는 친구를 보며 아직 인생을 달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이 때 만난 책이 [청소기에 갇힌 파리 한 마리]입니다. 책 표지에 “슬픔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5단계”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부정-분노-타협-절망-수용'의 '슬픔의 5단계'를 멜라니 와트가 그림책으로 녹여냈는데요. 그림책으로는 쪽수가 많은 편이지만 실제 읽다 보면 무거운 심리학적 내용을 이렇게 간결하고 경쾌하게 담을 수 있을까 하는 찬사를 절로 터뜨리게 됩니다.

'파리가 세상 꼭대기에 있을 때 그만 벌어지고 만' 일. 파리가 청소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버린 것입니다. 강아지 나폴레옹의 애완 봉제인형도 함께였죠. 감감한 청소기 안에서 파리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청소기에 갇혔다는 사실을 애써 회피하며 부정하다가 청소기에게 내보내달라는 반성의 편지도 쓰고 분노를 터뜨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어쩔 수 없다는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끝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책에서 만나는 또 다른 소독 중의 하나는 청소기 속에 들어 있는 지저분한 쓰레기들입니다. 낡은 형겅 조각, 면봉, 망가진 빗, 음료수 뚜껑 등등의 소품 장치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찾다 보면 마치 보물찾기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나폴레옹을 거쳐, 힘든 시간을 견디는 파리와, 곧 깨어날 준비를 하는 새알에게까지 미치는 봉제인형의 따스한 존재감은 '라이너스(만화 '피너츠'에 나오는 찰리의 친구)의 담요'를 연상하게 하는 포근한 안정감을 줍니다. 청소기 밖에 있는 나폴레옹의 심리를 상상하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는 재미입니다.

청소기에 갇힌 파리 한 마리를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름져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환하게 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세상살이에 지친 채 살아가는 바쁜 어른들에게 특히 권하고 싶습니다.

- 박정숙(경기 발안중학교 사서)



미술관에서 읽는 세계사

김영숙 지음 / 휴먼어린이
284쪽 / 2015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면 도서관일까, 책일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 정하기가 쉽지 않다. 여유 있을 때 하는 일이 도서관 서가를 두리번거리다가 제목에 끌려서 읽었는데 꼭 필요한 책을 만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다. 이 책도 그런 책이다. 여름 방학을 앞두고 여유가 있어서 도서관 서가를 누비다가 새 책 코너에서 만난 책이다. 책을 펴자마자 술술 읽었다. 다 읽고 나서 미술관으로 시간 여행을 갔다 온 느낌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세계사에 담긴 지식이나 내용이 깊지는 않지만 세계사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이 책에 수록된 그림은 신선하다.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림 보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림을 정했다는 것이 남 달랐다. 그림 속에 숨어 있는 역사를 나긋나긋 들려주는 이야기 맛도 담백하다. 이 책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충분히 그 맛을 알아 쉼 만큼 친절하다. 《샤를 7세의 초상》이라는 그림은 샤를이 얼마나 심약하고 의리 없는 사람인지를 느끼게 해 준다.

이 책의 순서는 세계사를 시간의 순서로 정리할 때 가장 적절한 차례로 정리 되었다. 우리나라 중학교 교과서는 한국사, 중국사, 일본사, 서양사를 시대 순으로 섞어 놓아서 한 눈에 정리하기 힘들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양사를 11장으로 간략하고 명쾌하게 설명해놓았다. 그림이 많아서 책 분량이 280쪽이 넘어도 후딱 읽힌다.

마지막으로 고대, 중세, 근대, 현대를 나누는 구분에 필요한 사건이나, 누구나 알아야 하는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이 해 놓았다. 게다가 가끔은 일반적으로 알기 어려운 숨은 이야기도 곁들여져 있어 읽는 이의 지루함까지 배려해 놓은 책이다.

책을 읽고 나서 미술관 전람회를 보러 시간 여행을 갔다 왔다는 느낌은 아이들 책이 나아갈 길을 보여준 듯하다. 책을 읽지 않으려고 애쓰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보듯 책을 읽게 해 주는 재미를 발견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김경숙(보령 책사랑독서회)



조급한 부모가 아이 뇌를 망친다

신성욱 지음 / 어크로스
263쪽 / 2014년

이 세상의 많은 부모들은 어쩌다 부모가 되어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을 찾아 헤맨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그 고귀한 열망은 종종 미디어에 현혹되고 산업화된 사교육시장에 왜곡되어 아이의 불행을 자초하는 쓸쓸한 풍경을 자아내기도 한다. 현대에는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사회 시스템이 전방위적으로 불안을 자극하고 있어서 부모가 깨어서 성찰하지 않으면 그 압박에서 벗어날 재간도 없다. 이 책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협하는 비극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그런 현실의 토대가 되는 잘못된 믿음과 과학이라고 포장한 상술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더불어 뇌과학이 알려준 새로운 관점으로 아이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저자는 다큐멘터리 작가, 프로듀서로 여느 부모처럼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과 책임을 마주한다.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탐색의 과정에서 다큐멘터리 <읽기혁명>을 제작하여 뇌과학을 근거로 아이들에게 읽기란 무엇인지 살펴보게 된다. 아이의 뇌 발달에 대한 저자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삶과 교육 문제로 연결되었다.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뇌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변화를 거듭한다는 점이다. 나만의 고유한 뇌는 술한 시행착오와 경험이 쌓이면서 전 생애를 걸쳐 아주 더디게 다듬어진다. 그리고 아이들은 오랜 진화의 과정을 통해 설계된 아주 정교하고 절묘하고 아름다운 생명체라는 점이다. 아이라는 존재의 특별함과 생의 신비에 대해 새삼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흔히 아이의 본질을 외면하거나 간과하곤 한다. 아이들이란 어떤 존재인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인지 진정으로 안다면 인지학습 중심의 조기 교육으로 아이들의 마음과 정신을 가두거나 부모의 의지로 아이의 삶을 만들려고 애쓰는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엉뚱하면 독서든 놀이든 유익을 좇아 선택한 그 어떤 것도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게 되는 함정에 빠지고, 문제가 생겼다는 것조차 자각하지 못할 수 있다.

인간의 발달 과정, 생물학적 시간표에 비추어 보면 아이에게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보다 명확하게 가려낼 수 있을 것 같다. 아이의 뇌가 자연스럽게 발달할 기회를 주고 시간을 허락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나는 과연 부모로서, 앞선 세대로서 인간답게 성장하고 있는지, 인간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들여다보게 된다.

- 박샘(서울 일원초등학교 교사)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사서

‘도란도란 책모임’ 나에게는 필연!!!

나미정 (오류중학교 사서)

사서로 근무한 지 4년차. 2013년 오류중학교 도서실을 운영하면서 열의도 있었지만 걱정이 더 앞섰다. 뒤늦게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면서 쫓아가느라 정신없는 가운데 나름 나만의 색깔이 분명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도서실 운영 1년 계획 중 7월 행사인 독서캠프를 준비하는 상황이었다. 독서캠프를 진행하면서 책의 저자를 직접 만나 강연도 듣고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된다면 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분을 모셔야 할지 막막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다른 중학교 사서선생님의 추천과 도움으로 백화현 선생님을 섭외할 수 있었다.

백화현 선생님은 열정적으로 “도란도란 책모임”에 대한 강의를 하셨다. 그런 열정과 설득력 있는 말씀에 매료 되었다. 강의를 듣기 전에는 디베이트 토론과 같은 독서지도를 실천하려고 애썼지만 내가 정작 추구하는 독서동아리는 백화현 선생님의 “도란도란 책모임”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자율독서동아리를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한 후 도서실에 자주 오는 친구들 몇 명을 설득해서 학년에 한 팀씩 운영하게 되었다.

하지만 막상 운영해 보니 쉽지 않았다. 동아리 운영법을 스스로 체득한 것이 아닌데다 아이들 역시 자율적으로 독서동아리를 해본 경험이 없는 탓에 문제 하나 제대로 만들기가 힘들고 토론이 자꾸 끊겼다. 그걸 보면 또 내가 개입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학생들은 또 내게 의존하며 자율성과 적극성이 떨어졌다. 그러다 2016년 초에는 결국 1팀만 남았다. 이렇게 끝인가!!! 그렇게 자책과 허무함이 밀려왔다. ‘사서 혼자서 독서동아리 운영한다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 일인가!’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다. 다른 혁신학교 사서선생님도 진행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우리 사서들보다는 국어과 선생님에게 맞는 것이라고 넘겨만 하고 있을 때였다.

고척도서관에서 ‘청소년 북스타트 도란도란 책모임 마중물샘 워크숍’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무엇인가 달랐다. 독서토론리더 과정, 독서디베이트 진행자 과정, 서평쓰기 등은 우리 사서들이 진행해야 하는 것들이라면 이 마중물샘 워크숍의 내용은 우리가 중

간매개체 역할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 오신 강사님 말씀을 듣고 독서에는 인문독서와 실용독서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껏 자신을 위한 인문독서가 아닌 실용독서 위주로만 하고 있었기에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학교에서 학생동아리 운영을 하면서 고민에 빠지고 벽에 부딪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나에 대한 책임기가 제대로 안 되어서 다른 사람 특히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니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정작 내 독서가 잘 안 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전달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리고 책읽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했음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첫 워크숍부터 매달 1회씩 만나면서 자유롭게 의논 후 논제도 만들고 비경쟁토론도 하면서 독서 후 활동이 이렇게 즐거워야 됴를 몸소 느낀 것이다. 그래서 다시 책모임 운영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이렇게 책읽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을 학생들도 느끼면 참 좋을 텐데. 혼자만 느낄 것이 아니라 바로 내년부터 실행에 옮겨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차에 교장선생님께서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로 우리학교는 1학년들이 2학기부터 실시하게 되니 도서실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보고하라고 했다. 주저 없이 “도란도란 책모임”에 대해 설명하고 저 혼자 몇 년 동안 해왔지만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교사와 같이 협력해야 함을 말씀드렸다.

마침 고척도서관에서 매달 강의하시던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타 학교 사례를 들었던 터라 일단 나와 함께 해 주실 분을 찾았다. 그러다 보니 국어과 선생님을 설득하게 되었고, 율타리교사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율타리교사를 찾아서 설득해 보라고 했다. 율타리 교사는 학생들에게 칭찬과 격려면 충분하다고 도와 주십사 말씀드렸다. 이렇게 해서 생긴 책모임이 무려 11개! 1학년 9개팀(35명)과 2학년 2팀(2명) 총 43명이 활동하게 되었다.

11개 책모임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모두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결성 그 자체만으로도 내게는 감격스럽다. 내가 이러저러 핑계를 대며 주저앉으려 할 때 나에게 다시 도전하고 배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고척도서관과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게 참으로 고맙다. 또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교장 선생님과 국어과 선생님께도 감사하다.

학교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하다 보면 외롭고 막막할 때가 많다. 하지만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기보다

는 모르는 것은 찾아다니며 배우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길이 생긴다. ‘도란도란 책모임’을 만난 이후 11개의 도란도란 책모임을 결성하기까지, 누군가에게는 하찮게 보이는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내게는 허물을 몇 꺼풀 벗겨내고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마음을 잃지 않으며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자 한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출판사

독립출판을 해보자

김남기 (도서출판 소동 대표)

독립출판이란 말이 낯설지 않게 되었다. 기성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저자 개인(또는 친구 몇몇)이 편집, 디자인, 제작, 배포까지 모두 직접 하는 출판인데, 독립이란 ‘자본과 시선으로부터의 독립’을 뜻한다.

필자가 처음 독립출판물을 본 것은 2년 전쯤 서촌의 한 동네서점에서였다. 말로만 듣던 독립출판물을 만난 첫 느낌은 ‘실망스러웠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기대했는데, 대부분이 정식으로 출판을 하기에는 결함이 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출판사에서 받아주지 않으니 자비로 낸 책이 독립출판의 현실인가 싶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드로잉 모임에 참가하고, 이미 독립출판물을 낸, 젊은 선생님의 인도로 나도 독립출판을 하게 되었다. 마당의 민들레를 그리고 글을 붙인 32쪽, 5000원짜리 그림책이었다. 세상에 내놓기에는 부끄럽기 한량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책을 만들고 보니 참 많은 경험들이 나를 방문했다.

우선 2015년 11월, 드로잉 모임 사람들과 어울려 독립출판 북페어인 언리미티드에디션에 참가했다.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이를 동안 열린 북페어는 말 그대로 발 디딜 틈도 없었고, 사람들은 비가 오는데 가까이 두 시간 가까이 줄을 서서 입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방문했지만 인파에 묻혀버리고 마는 곳, 그보다 훨씬 재미난 구경거리가 차고 넘치는 곳이었다. 오랫동안 책 만드는 일을 해왔지만, 그렇게 개성 넘치는 책들이 한 장소에 모여있는 건 처음이었다. 책의 권위보다는 작가가 살아있는 책들이 그곳에서 춤추고 있었다. 그러니 방문객도 축제에 온 마냥 신나했다. 기성 출판과 단순하게 비교하여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내가 참 부끄러워졌다.

독립출판을 하면서 동네서점과 친해진 것도 중요한

경험이다. 독립출판물은 ISBN을 꼭 부여받을 필요는 없지만, 대신 그 때문에 대형 서점에서는 유통을 못하고 독립출판물을 다루는 동네서점에서 주로 판매된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동네서점 정보도 잘 알고, 방문할 일이 많아지니 책도 거기서 주로 사게 된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동네서점의 배경에는 '나만의 책'에 대한 욕구들도 한 몫 한 게 아닐까.

무엇보다 소중한 경험은 독립출판 하는 동료들을 만난 것이다. 이들은 '내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기존 출판물 형식에 매이지 않는다. 당연하게도 발언은 마이너의 편이고 진보적이며, 형식은 새롭다. 그리고 즐겁다. 나는 이런 개성 있는 목소리가 앞으로 세상을 주도하겠다는 느낌을 몇 번이고 받았다.

독립출판을 해보자. 작게라도 내 책을 만들고 유통하다 보면 책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나와 세상을 새로이 발견할 수도 있다. 안 팔리면 어쩐가, 이미 즐거운데.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학부모
책읽는 소리로 들썩이는 행복한 금요일 아침
 오현애 (학도넷 운영진/교육나눔협동조합 이사장)

여 책을 고르고 책읽는 연습을 한다. 행복한 금요일이다. 책선배는 다시 교장선생님과 교감, 교사들이 읽어주는 '책선생님'으로 발전하고 2014년부터는 명사초청 '책 읽는 소리'가 시작되었다.

우리 지역의 여러 어른들이 학교에 와서 각 학급에 들어가 책을 읽어주는 거다. 소방서 의용소방대, 국회의원, 구청장, 교수, 지역방송국과 신문사, 도서관장, 그림책작가, 마을활동가, 생태운동가, 작은도서관 활동가, 기업가, 학부모회장 등 온 동네 다양한 직업과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꽃을 피운다. 자연스럽게 진로교육이 되고 직업체험이 이루어진다. 정작 책소리 참가자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힐링이 되고 체험이 되었다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 어른과 아이가 서로 배우는 자리가 된 것이다.

학교도서관에서 자원활동을 하는 학부모들의 작은 움직임이 시간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그래서 책 읽는 소리가 쌓이게 되는 결과를 이루게 되었다. 우리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시절, 좋은 그림책을 만나고 이야기책을 만나는 그런 행복한 금요일을 만들었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사서
쌍문초등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임인숙 (서울쌍문초등학교 사서)

할을 한다. 학생 수가 800여 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들의 도움 없이 사서 혼자하기에는 버겁다.

명예사서는 대출반납은 물론이고 청소까지 도서관에 미치는 손길이 크다. 이외에도 '북텔러 지원단'이란 이름으로 아침 북클럽과 수요일 방과 후 북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아침 북클럽활동은 매월 1, 2주 금요일에 1, 2학년 대상으로 아침에 교실에 찾아가 재미있는 책을 읽어 준다. 아침 북클럽 활동은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고, 명예사서들 역시 보람을 한아름 안아가는 활동이다.

수요일 방과 후에 하는 북클럽 활동 역시 책을 읽어주고 독서활동으로 이어지는데 아이들이나 명예사서나 더 많은 아이들이 더 확대하기를 바랄 정도로 적극적이다. 명예사서들은 자신의 능력을 도서관에서 발휘한다. 어느 분은 더럽혀진 도서관 벽에 그림을 그려 도서관을 명물로 바꿔놓기도 한다. '별빛 가족 독서축제'에서는 책을 읽어주고, 체험활동을 하며 아이들의 독서활동을 돕기도 한다.

20여 명의 어린이 사서는 주 1회 정도 도서관에서 봉사를 하지만 틈이 나는 대로 도서관에 와서 책을 배가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보다가 두고 간 책을 정리하거나 책상을 반듯하게 정리하고 가기도 한다. 한 달에 한번씩 1~3학년 교실에 가서 책을 읽어주는데 처음에는 떨리고 쑥스러워 마음 조리지만 책을 읽어 준 후에는 얼굴 가득 뿌듯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 동안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아이들의 책읽기다. 한 권을 읽어도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읽기를 바란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권할 때도 이 책을 왜 읽었으면 하는지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 또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권하기도 한다. 그럴 때면 아이들은 읽고 나서 꼭 느낌을 말해주는데 마치 저와 나만 아는 것 마냥 비밀스럽게 다가온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은 쌓인 피로를 풀어줄 정도로 예쁘다.

도서관 사서로 사는 보람은 여기에 있다.

2002년부터 도서관 바닥에 앉아 시작된 '책읽어주는 엄마'.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그렇게 시작된 명예사서 엄마들의 책읽어주기가 2016년 오늘까지도 매주 금요일 1~3학년 교실에서 있다. 8시 45분이 되면 교실은 이야기 세상을 소개하는 책엄마와의 만남으로 행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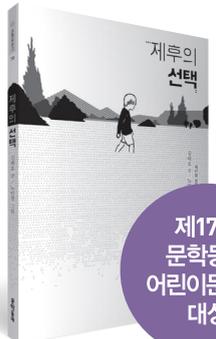
'책엄마'는 4~6학년 선배들이 1~3학년 후배들에게 읽어주는 '책선배'로 확대되었다. 책선배들은 어린 후배들과의 책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요일마다 모

학 교도서관이란 공간의 크기만큼 마음을 꼭 채우는 곳이다. 도서관 구석구석, 내 손길이 머문다는 것은 도서관에 대한 애정의 크기에 비례한다. 아침 일찍 도서관에 들어가 가만히 도서관과 책에 인사하고, 컴퓨터를 켜고 업무에 들어간다.

도서관을 움직이는 데는 많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 우리 도서관에는 명예사서와 어린이사서가 큰 역

어린이문학의 완성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 동시문학상**

홈페이지 www.munhak.com | 카페 cafe.naver.com/mhndn
 페이스북 facebook.com/kidsmunhak | 트위터 @kidsmunhak



제후의 선택
 김태호 글 | 노인경 그림
 따뜻한, 살아 있는, 하나하나의 우주인
 아이들의 목소리

“누가 어린이를 지킬 것인가. 어른들이 제자리걸음만 하는 사이에 어린이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탈출하기 시작했다.” _심사평에서

제17회 문학동네 어린이문학상 대상



넌 어느 지구에 사니?
 박해정 시 | 고정순 그림
 풍자와 해학, 즉흥적인 이야기와
 다양한 삶의 세목을 실어 나르는 만화적 동시

“사회 현실을 동시 내부로 이렇듯 깊숙이, 재미있게 끌어들이는 경우는 일찍이 없었다. 예외적 개성의 탄생이라 부를 만하다.” _심사평에서

제4회 문학동네 동시문학상 대상

문학동네

학도넷 소식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 학도넷 활동소식입니다.

학도넷 행사

- 2016년 9월 3일 학도넷 9월 만남과 바람
'박제된 과거가 아닌 오늘의 현장-세종로와 경복궁'
- 2016년 9월 15일 학도넷 소식지 가을호 발행(총권 40호)
- 2016년 11월 9~13일 중국 동북3성 조선족학교도서관 담당교사 연수

신입회원 (2016년 9월~11월)

정회원 : 이미순, 내인생의책

웹회원 : 노효경, 이현주, 김예지, 이경민, 김연진, 광도희, 등백출
판사

회비 및 후원내역 (2016년 9월~11월)

정회원 회비

·매월 5천원 : 강복숙 강영미 구미숙 권도경 김미숙 김경숙 (보령) 김대경 김선영 김심환 김영신 김은영 김정윤 김정혜 김하나 김호숙 마민희 문수지 박미영 박준섭 백경숙 선보배 성주영 이혜진 송경영 성미경 송숙영 송추향 송혜영 신은미 신정화 신형란 유서연 유정원 윤남미 이금화 이미순 이유정 이 현 이현애 임경순 정미순 정수연 정영희 정영하 주상태 차진미 채재현 최선옥 허지은

·매월 1만원 : 강애라 강지영 권기정 권향미 김경숙 김광재 김숙경 김은영 김순홍 김승주 김신희 김옥위 김중성 김진희 김진희(관악) 류주형 문예원글로피아 박 샘 박영옥 박정해 박지연 변영이 백화현 백연주 오희애 유은실 이경자 이규향 이기영 이문숙 이영주 이찬미 장범진 정수현 정영희 정지영 정진수 조길랑 조선희 조은영 조의래 허경림 황봉희

·매월 2만원 : 김순정(부천소사초)

·매월 3만원 : 도서출판 북극곰

·연회비 : 정재연(12만), 김봉화(10만)

준회원 회비

·매월 : 김민형(2천) 김송요(2천) 김송현(2천) 손은상(2천) 손은서(2천) 손은재(2천) 송권형(1천) 이지혜(2천) 장벼리(3천) 장한솔(2천) 최유미(3천)

정기후원 : 문학동네(매월 20만)

광고후원 : 소식지 여름호 단비(25만) 도서(25만)

후원금 : 소사초등학교 ~ 중국조선족학교 그림책지원(50만)

새로 나온 책 보내주신 곳

컴퓨터에 빠진 저팔계(한간회)/정이가 필요해, 너는 모르는 게 좋아(미세기)/나홀로 버스, 욕심쟁이 늑대, 늦게 온 카네이션(북극곰)/아토믹스-지구를 지키는 소년(비호스)/청소년을 위한 리딩으로 리드하라(생각학교)/아삭아삭 배추김치, 내 동무, 리구철(섬)/부끄러운 세계문화유산 군함도(우리교육)/편의점 가는 기분, 이만큼 가까운 시리즈, 게임의 법칙(창비)/한 권으로 보는 어린이 인류 문명사(한울림)/치치가 온 바다(프로메테우스)/아기 오는 날(프로메테우스)/내가 강아지가 아니라구요?(상상의 힘)/깜짝선물(상상의 힘)/이렇게 어른일지 없어(티티)/마지막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작(M&Kids)/우리 아빠 자장자장(청개구리)/우리아빠는 대장(청개구리)/햇살왕자(청개구리)/오잉?(웃는돌고래)/할아버지의 선물(호미)/마지막 뉴스(웃는돌고래)/떨기는 떨기앗(웃는돌고래)/동동이가 워더마우스(북극곰)/지붕 위 루시(북극곰)/한흥구의 청소년역사특강(철수와 영화)/하이타니 캔지로의 생각들(양철북)/가만히 안 있을걸 그랬어(낮은산)/썩갓 꽃을 그랬어(낮은산)/뽕뽕 방귀병에 걸렸어요(침어린이)/명명 강아지로 변했어요(침어린이)/으악! 말썽꾸기가 나타났어요(침어린이)/거짓말쟁이 왕바람(고래가 숨쉬는 도서관)/손가락살인(르네상스)/우리학교에 시리아친구가 옵니다(천개의 바람)/너희 집은 어디니?(북극곰)

소식지 보내주신 곳

맨발동무(어린이도서관 맨발동무)/책&(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도서관문화(한국도서관협회)/학부모신문(참교육학부모회)/놀이하는사람들(사)놀이하는사람들/고래가숨쉬는도서관 가을호(고래가숨쉬는도서관)/개똥이네 놀이터(보리)/어린이문화연대/서울교육(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모아모아(사)한국문예연구원 콘텐츠추진연구원

*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은 학교도서관활성화를 위해 귀하게 쓰겠습니다. 지속적인 광고와 도서후원을 기다립니다.

2016년 9월 학도넷 만남과 바람했습니다.

문화재를 통해 본 한국 근현대사 4차
'박제된 과거가 아닌 오늘의 현장' 세종로와 경복궁

- 이꿈이 : 권기봉 선생님
- 때 : 2016년 9월 3일(토) 오전 10시~오후 2시
- 다녀온 곳 : 고종즉위40년 칭경기념비전 - 도로원표 - 세종문화회관 - 세종로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옥상정원 - 경복궁 광화문 - 법천사지광국사 현묘탑 - 근정전과 사정전, 교대전, 그리고 경회루 - 향원지와 향원정 - 건청궁 - 자선당 유구(석축) - 경회궁 방공호 - 흥남파 옛집 -딜쿠샤 - 독립문과 영은문 주초 - 인권운동의 현장이자 보루 서대문형무소

2016년 중국 동북3성 조선족학교 도서관 운영교육 연수 다녀왔습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노녕성 심양(심양시 조선족제6중학교, 심양시 화평구 서탑조선족중학교)으로 중국 동북3성(길림성, 노녕성, 흑룡강성)과 내몽골자치구에 있는 조선족학교 도서관담당교사들 60여 명이 모여 '도서관은 살아있다'는 주제로 도서관운영연수를 했습니다. 노녕성 심양시 교육연구원이 주최하고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신한은행이 후원하는 행사였습니다.

학교도서관활성화를 통한 조선족학교를 지키려는 도서관담당교사들과 교장, 교감들의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창비출판사, 세계철, 고래가숨쉬는도서관 등 좋은 자료와 물품을 지원해주셨고 소사초등학교가 도서바자회를 통해 모여진 수익금 50만원을 연수활동에 필요한 그림책구입비로 지원해 주어 풍성하게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류를 통해 조선족학교 우리 동포아이들을 위한 지원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만원의 행복", "만원의 실천" <나누리>가 되어주세요.

2016년부터 학도넷이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에 우리나라 잡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은 관심인데 정말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2017년도에도 중국 조선족학교도서관에 우리 잡지를 보내주세요!! 우리의 정성어린 관심이 우리 겨레의 긴 소통이 됩니다. 평화가 됩니다.

보내주는 잡지 *개똥이네 놀이터와 개똥이네 집 *학교도서관저널 매월 구독비 1만원씩을 후원하시면 해외배송비는 학도넷이 부담합니다. 연락 기다립니다. 010-4723-0856 학도넷 사무처

2016 학도넷 후원의 밤에 초대합니다. "토닥토닥 위로와 희망을 나누다"

- 2016 학도넷 후원의 밤 -

토닥토닥 위로와 희망을 나누다

학도넷이 열네번째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학교도서관에서 애쓰신 모든 분들을 모시고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서로 두드려주고 눈담아주는 자리 만들어요.

연 제 2016년 12월 15일 목요일 오후 5시-9시
어디서 서울시 NPO지원센터 1층 강당 '꿈다' (시형역)

후원티켓 2만원
후원계좌 국민은행 356201-04-173422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학도넷)

<문의 : 학도넷 사무처 02-720-7259 / 010-4723-0856>
후원티켓 한 장으로 먹을거리, 공연, 행사를 모두 즐기실 수 있습니다.
후원티켓을 먼저 발급하시고 분자나 전화를 주시면, 행사 당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후원만 하시는 경우 발급 후 문자로 성명/주소를 주시면 행사 후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함께 해요>

- 이루리리 그림책 여행
- 독무지선 제갈인철의 책과 노래가 함께하는 인문학 콘서트
- 작은책상 인형극
- 마왕이(김은영)와 추복생(이명키)의 무장탈춤, 말레니 키가 커졌어요.
- 너굴뽕(박수경)의 해와 달이 된 오누이
- 올방울(김민정)의 꼬부랑 할머니
- 극단 '농자'와 함께 체험극 '색깔은넌'

즐! 얼굴그리기를 통해 서로를 만나게 하는 소통과 열릴프로젝트 리강의 페이스 투 페이스(공필화)

셋! 두린두린 이야기꽃이 피는 정감 있는 저녁밥상 라운딩이 바로바로 내려주는 커피

2016 학도넷 겨울사서연수 서평학교 합니다.

<읽고 생각하고 쓰고 참여한다>

사서로서 독서정보서비스를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사서들의 욕구가 큼니다. 학교도서관에서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싶은 선생님, 학생들에게 책임기와 글쓰기를 잘 알려주고 싶은 선생님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적극적인 독자는 출판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독자가 원하는 출판을 독려하는 방법은 서평! 서평쓰기에 한 발짝 다가서는 열쇠를 찾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내 머리로 읽고, 내 관점으로 생각하고, 내 언어로 쓸 수 있는 서평쓰기가 건강한 독서관을 만듭니다. 세상을 바꿉니다. 학교 도서관운영 담당자들이 책에 대한 이해를 깊게 가지고 수서하는 책에 대한 책임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사서, 담당교사들을 모시고 서평쓰기에 대한 실전을 함께 하고 서평집도 묶어줍니다.

1. 목적 : 학교 도서관 운영에 참여하는 담당자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책문화를 익힐 수 있는 장을 열어 학교 도서관활용의 폭을 넓힌다.
2. 목표 : ▶ 학교 도서관 운영 담당자들의 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다양한 관점으로 책을 바라 볼 수 있다. ▶ 책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고 효과적인 글쓰기로 표현할 수 있다. ▶ 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서평쓰기가 우리나라 출판문화의 흐름을 올바르게 이끌고 갈 수 있는 기본임을 인식한다. ▶ 학교 도서관 담당자로서 수서하는 책에 대한 책임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3. 감사 : 김혜원(어린이책 비평가, 학교도서관저널 신간선정위원/어린이책분과장) 민경록(청주기적의 도서관 관장)

시간	1월 11일(첫째날)	시간	1월 12일(둘째날)
	일단 쓰기		생각과 글의 차이
10:00~12:00	몸풀기로 간단한 시 그림책 만들기	9:00~12:00	말과 글의 간극 줄이기 1) 내가 권하는 책 소개말 2) 말한 것을 글로 쓰기 3) 모둠별 첨삭, 전체 첨삭
12:00~13:30	점 심		
13:30~15:00	비평과 토론 맛보기	13:30~15:00	서평 vs 서평 1) 이상한 서평 첨삭해 보기 2) 이상한 문장 찾아보기
15:00~15:30	발표	15:00~17:00	서평으로 그려보는 어린이책 민경록(청주기적의 도서관 관장)
15:30~16:00	휴식		
16:00~19:00	비평의 첫걸음, 잘 읽기 1) 주어진 단편 읽고 단어로 정리와 발표 2) 문장쓰기 (한 문장 -이백자 -오백자) 3) 단락쓰기	16:00	집으로
19:00~20:00	저녁		
20:00~22:00	(첨삭과 토론)		
강사	김혜원 선생님		김혜원·민경록 선생님

- 주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때 : 2017년 1월 11일(수)~12일(목) (1박 2일 숙박연수)
- 곳 : 경기도 양평 학도넷 작은도서관
- 대상 : 학생과 교사, 교실과 도서관을 풍부하게 연결하고 싶은 초·중등 사서(교사), 도서관담당교사 20명
- 참가비 : 10만원 / 학도넷 정회비를 내는 회원 9만원 (1박4식 포함) 국민은행 356201-04-173422(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신청 : 아래 신청양식을 작성해서 메일(hakdonet@hanmail.net)로 보내주세요.
- 준비물 : 읽으신 책 중에 남에게 권하고 싶은 책 1권 (노트북 있으신 분들은 가져 오세요^^)
- 문의 : 학도넷 사무처 (010-4723-0856)

순수 시민단체인 학도넷의 재정은 회원님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후원금과 회비는 학도넷의 재정자립과 안정된 활동을 보장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은행 356201-04-173422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학도넷)